

## ■ 화제의 뉴스 ■

**법원 “불법 분양현수막, 건설사도 책임”...미묘한 파장**

앞으로 건설사·시행사들은 아파트 분양 홍보현수막 설치에도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분양·광고대행업계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 인근이나 주요 사거리에 1,000장 이상의 '게릴라현수막'을 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광고대행사가 아파트 분양홍보를 위해 건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하여, 광고주인 건설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게시금지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1,100여 장의 불법 분양현수막을 게시한 광고대행사와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A건설사에 대해 과태료 1억 5,000만여 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분양대행사나 광고대행사에 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나, 이들의 폐업·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자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A건설사도 불법 분양현수막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법원은 “광고대행사에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A건설사가 광고대행사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아 과태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불법 현수막 게시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 [서울경제 - 법원 “불법 분양현수막, 건설사도 책임”...미묘한 파장\(2016. 12. 14.\)](#)
- [아시아투데이 - '불법 분양현수막 공해' 건설사 법적 책임진다\(2016. 12. 14.\)](#)